

“여학생은 울고싶다”

여학생 인권 보호 환경 마련 시급



최근 우리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이 파일공유 사이트와 음란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부경찰서에 고소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사이버수사대에 파일 유포 확산을 막기 위해 파일공유자 처벌을 요청했고, 학교 내 시설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학교 내 여자화장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은 2건이 더 있었지만, 아직 영상을 촬영한 범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이처럼 여학생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여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총여학생회가 3년째 건설되지 못하고 있어 여학생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와 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 동안 여학생의 처우개선과 학기 내 여학생을 위한 행사를 담당하는 역할은 여학생실이 담당해왔다. 여학생실은 성교육특강, 여학생 휴게실 제공, 각종 단기간 강좌 개설 등의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여학생의 처우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도 여자화장실내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화장실 간별로

비상벨을 설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여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처우개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8대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하에 여학생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여학생위원회 허소정(컴공2) 위원장은 “현재 여학생 처우에 대한 시설상황 등의 환경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환경조사가 끝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학생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학생실의 흥선희 직원은 인권침해문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여자화장실 안에 칸을 나누는 벽의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학교 측에 건의했다”며 “학교 측에서 비용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여학생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은 방안을 보다 철저히 하고, 자체적 처벌방안을 세우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

학생들도 촬영하는 학생들이 발견되는 시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대처방안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단 1%의 가능성’... 백옥경 동문 산악골랜드슬램 달성 기념 동판부조가 오는 21일 제작을 앞두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동판부조는 우리학교 조승환(미술학) 명예교수가 백 동문의 도전정신을 기리고자 제작했다. ▶관련기사 5면

편집부

dgupress@dongguk.edu

우리학교 2006년도 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 불교관련 자료 국가지식 DB포탈에 전산화

지난 7일 정보통신부는 우리학교를 ‘2006년도 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DB화하여 주요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보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

△과학기술 △역사 △문화 △교육학술 △정보통신과 신성장동력 및 지역관련사업 등 전략적으로 DB가 필요한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학교가 불교문화분야를 맡고 있으며 △국방대(국방학술정보) △대구대(장애인 특수교육·재활과학정보) △명지대(한국관련 외국자료) △서울대(한국학 고전원문) △성균관대(한국경학자료 및 족보) △전북대(호남지역 고문서)가 분야별로 맡고 있다. 불교와 관련해서는 우리학교와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올해 5억7,900만원을 지원받으며, 향후 5년간 예산은 추후에 결정된다. 불교문화·불교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지식DB포탈에 전산화하며, 1년차에는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불교사전을 DB에 구축한다.

중앙도서관(이화 중도)은 실질적인 대외창구 역할을 하며 △여경원 △출판부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연구소가 중도와 협의 하에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서 학술정보관리팀 김종철 팀장은 “우리학교 중도 DATA를 국가지식으로 공인받고, 불교분야 전문연구센터로 거듭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행정 동문 98명 승진·전보발령

우리학교 경찰행정학과 동문 98명이 2006년 경찰청 인사발령에서 승진·전보했다. 치안감 이상 승진은 △경찰청 경찰청장=이택순(대학원동문) △경찰청 차장=한강택(경행10기) △경찰청 수사국장=김용화(대학원동문) △경찰청 보안국장=조용연(경행11기) △경기지방청장=어청수(경행11기) △부산지방청장=강희락(대학원동문) △울산지방청장=홍순원(경행5기) △전남지방청장=홍영기(경행12기) 그밖에도 경무관, 총경에 90명이 승진·전보 발령을 받았다.

서울 인문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서울 인문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10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서울 인문학장학생은 이번 학기 본교생 19명을 비롯하여 △서울대=25명, △고려대=25명, △성균관대=21명 등 총 180명이 선발돼 학기당 250만원 장학 혜택을 받게 됐다.

본사 신임 부주간 정길상 교수

본사 신임 부주간으로 정길상(사회체육학) 교수가 지난 7일자로 임명됐다.

정길상 부주간은 우리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 경상북도 스퀘시 연맹 부회장, 경주시 체육회 이사, 경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5년 연구비 수주실적 대폭 증가 101억원 증가 ... 공과대 실적 1위

우리학교 외부수탁 연구비 수주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연구처(처장=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연구 과제수는 315건, 수주액은 254억으로 지난 2004년도와 과제수는 76건 수주액은 101억원이 증가했다.

2005년도 외부수탁 연구 실적이 증가한 것은 연구지원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혁신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처는 올해 연구사업으로서 △2단계 BK21사업 수주 추진 △ 2006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별 특성을 살린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단과대학별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04년			2005년		
순위	소속	연구비	순위	소속	연구비
1	공과대학	5,832,113	1	공과대학	5,708,437
2	이과대학	2,972,140	2	정보산업대학	3,714,097
3	경영대학	732,632	3	이과대학	3,556,508
4	정보산업대학	627,000	4	불교대학	1,222,796
5	불교대학	608,836	5	생명자원과학대학	1,220,341

알림

본사 수습기자 선발관례로 20일자 신문은 쉽니다. 다음 신문은 3월 27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금주의 동국인

100주년 당찬 새내기 김승혜 양



지난달 27일, 2006학년도 입학식에서 씩씩한 목소리로 신입생 선서를 했던 수석입학자 김승혜(경찰행정1) 양. 김 양은 “단상에 오르기 전 직원 선생님께 여러 조언을 들었지만 이름이 불리는 순간부터 하나도 기억이 안났다”며 두근거렸던 그 때를 떠올린다.

개강 후 열흘 남짓, 아직은 대학 생활이 적응이 안 돼 정신없는 나날

을 보내고 있다. 며칠 전에는 동국관 내에서 강의실을 찾지 못해 헤맨 적도 있다고.

고등학교 때까지와 가장 다른 점은 학교가 넓어져 각 건물을 찾고, 이동하기가 힘든 점이라고 한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학교의 경사가 급해 힘들다”며 “연강인데 강의실이 각각 동국관과 학림관인 경우가 있어 난감한 경우도 있다”며 김 양은 멋쩍게 웃는다.

그러나 이외에는 즐겁게 적응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동기들과는 강의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으며 다니며 많이 친해졌다”며 “매일 저녁에 하는 우리 학과의 운동도 서로 챙겨주며 해 힘들기보다는 재밌다”고 한다.

우리학교에 오게 된 계기를 묻자 김 양은 “경쟁이 되고 싶었다”며 “경찰행정학과라고 하면 동국대가 제일이라고 생각해 지원했다”고 한다. 학교 주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두려워했던 적이 있는데, 자신은 이런 범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이후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동기들을 비롯한 06학번 친구들에게, 수업 중 들은 한 교수님의 말씀대로 “백년의 획을 긋는 06학번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우리학교의 누가 되지 말자”고 하는 김 양의 모습에서 희망찬 새나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금주의 동국인’을 추천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국 100년, 맑은소리 좋은생각

동국의 백년이 밝아옵니다.

다가오는 동국 백년은

이미 채워진 그릇이 아닌

끊임없이 채워질 그릇이 되는

無限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이들에게 두근두근 울림으로 다가가는

명문 동국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창용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원고모집

대상 학생,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등 모든 동국 가족
내용 건학 100주년을 자축하며,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국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맑은 소리 좋은 생각의 기획 취지에 어울리는 내용

형식 자유 분량 100글자 안팎 원고 마감 2006년 4월 30일까지(1차 마감)

원고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교내네트워크) 핸드오피스 전자우편 수신 : 동대신문사 부국장 관주영

원고료와 부상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잘 된 원고를 플라 총 상금 100만원(100만원, 감동상 50만원, 자랑스상 30만원, 도전상 2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신문사(☎02-2260-3491)로 하시기 바랍니다.

냉전 성역은 허물어질 것인가

강정구 교수 천막강연 보수단체와 갈등 ... 강연은 "계속"

지난 8일 팔정도에서 강정구 교수 천막강연 진행과 관련해 보수단체와 추진 학생들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한편 천막강연 전날인 7일에는 강정구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신청했던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져분 신청이 기각됐다.

강의 예정 시간이었던 4시 이전부터 팔정도에는 천막강연을 준비하는 강정구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천막강연을 반대하는 활빈단, 자유네트즌 구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서로 대치해 양측의 주장을 내세웠다.

보수단체 측은 "자유 해제를 친북 교수가 강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정구 교수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주장하면서 천막강연을 반대했다. 또한 대책위는 "학교 측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위해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당초 4시로 예정돼 있던 강연은 단체와 대책위 학생들 간의 몸싸움

이 일어나고, 마찰이 커지면서 시작이 지연됐다. 강연은 보수단체와의 저지를 막기 위해 장소를 옮겨 5시에 동국관 M동 306호에서 진행됐다.

직위해제 결정이후 한달여 만에 학생과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강 교수는 '한국 사회의 냉전성역 허물기'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면서 "필화사건은 맹목적인 반북, 반공을 보여주는 비화학적 발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와 함께 "냉전성역이 흠뻑하는 한반도의 현 비정상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세계사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냉전성역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강정구 교수에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 강교수가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의를 들은 이윤건(법학4)군은 "강정구 교수의 사상 모두가 옳다고 보지는 않지



재학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강정구 교수의 강연을 듣고있다.

만, 한국전쟁의 책임을 북한에만 돌리려는 것으로 보는 점은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의가 끝난 뒤 동국관 앞에서는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를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향림교회 관계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또한 이 행사에는 숭실대 학생회장인 권혁식군도 참여해 "수업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서

는 안된다"며 "앞으로 이를 위해 숭실대 학생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이관용(사회4)위원장은 앞으로 천막강연 진행과 관련해 "앞으로 계속 천막강연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반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의를 마련해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회전무대

오픈 마인드



○... '개방형 열람실'이라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휴게실 용도로 전락해 버린 동국관 '능금사랑'의 모습.

이에 회전무대자 왈, "열린 마음을 가진 열람실(!)"

낯선사람

○...우리학교 수업시간 중에도 깜짝 대타가 등장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교수님이 사전에 예고 없이 바뀌는 바람에 전혀 다른 교수님이 등장했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하지는 않았을지.

이에 회전문무대자 왈, "스포츠 경기장 밖에서도 대타는 필요해(!)"

날이면 날마다



○... 이반학기에 들어감에 개강시간과 맞물려 명진관 실내 벽면과 창틀이 새로 페인트칠을 해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이에 회전문무대자 왈, "개강날은 곧 공사날(!)"

출석은 너무해

○...출석체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사이버강좌의 출석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개인의 컴퓨터 사양과는 상관없는 전산시스템은 신속히 고쳐져야 하지는 않을까.

이에 회전문무대자 왈, "출석체크 여부에 매번 울고 웃는 수강생(!)"

총장선출 관련 학내 움직임

노조, 전 구성원 참여하는 방안 제시 교수회, 민주적 총장 직선제 주장

학교법인은 지난달 2일 공문으로 '바람직한 동국대학교 총장 선출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총장선출 방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총장선출을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을 반영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의견을 제출했다. 직원노동조합은 "우리대학의 바람직한 총장선출방안으로 대학 구성원의 민주적인 노익과 의견을 거쳐 합의된 총장후보 선출제도를 통해 후보들이 추천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총장이 임명돼야 한다는 총장선출제도를 주장한다"며 "교수만의 총장선출이 아닌,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선출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총장후보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 구성 및 후보자 응모 △총추위에서 심사 후 후보자 3인 선정 △후보자 3인에 대해 교수, 직원이 모두 참

여하는 동시 투·개표 후 2인 선정 △법인 이사회에 후보 2인 추천이다. 한편 교수회는 지난달 15일 공문을 통해, "총추위 제도는 일부 사립대가 민주적 직선 요구를 회피하고자 편법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우리 대학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직선제에 의한 총장후보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염준근(통계학) 교수가 교수회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상록원에서 교수회 정기총회가 소집됐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수총회에서는 정관 제34조 '캠퍼스 회장의 선출'에 따라 교수회장을 선출했다.

신인 교수회장은 전체 147표 중 90표를 얻어 이종욱(정보관리학) 교수가 당선됐으며 황태연(정치외교학) 교수가 추천을 받아 감사로 선출됐다.

이준현 기자 niitake@dongguk.edu

보관 증축공사 실시

시설관리팀은 현재 보관 4층 증축공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공사는 학내 주요단체와 외부 방문인사가 한담, 대담, 세미나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대회의실 △소회의실 △소접견실이 각각 개씩 설치되며 4월 말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방학동안에는 원호관 맞은편 차고지 옥외휴게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했다. 이 공사는 학내부지의 집약적 활용 및 녹지·휴게공

간 확충을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계단형 강의실인 원호관 E103은 첨단영상기자재 설치 복합강의실로 바뀌면서 △63인치 PDP TV △최신식 프로젝터 △수업환경촬영 카메라 △전자 칠판이 설치됐다.

금강관은 속실 및 목욕탕 내부환경을 개선하고 정보전력실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만해관 바다 신규교체, 상록원 외부 계단 개선 공사 등이 시행됐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홍기삼 총장 방북

홍기삼 총장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방북한다. 우리대학 10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건학이여사찰인 묘향산 보현사와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의토익 오는 16일 시행

교내 모의 토익이 오는 16일 오후 1시와 오후 5시에 각각 동국관 L동 401과 동국관 L동 501에서 치러진다.

학생복지위원회 주최로 치러지는 이번 모의토익은 상록원 1층 영어특강 안내 데스크와 동국관 3층 로비에서 접수받으며, 응시료는 3000원이다. 단, 영어 특강 수강생은 무료로 접수가능하다.

익명의 신자 1억 1천만 원 기부

지난달 24일, 익명의 불교신자가 우리학교에 1억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그는 우리학교를 방문해 냉차와 버스표를 판매하며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

한편,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종발전기금 모금이 △기부 총액=약 17억 5천만 원 △약정 총액=약 16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즐거운 수료식 ... 지난 10일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수료식이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학생들이 자기자랑을 보여 즐거워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동약로

깜짝이사

"노트북 사용 공간이 좁고 지하라 공기가 탁한데, 환풍기가 없어요"
"화장실이 지하 2층에만 있어서 매번 오르락내리락 해야 해서 불편해요"

지난 6일 개관한 중도 별관열람실은 만해관 4층에 계산고시화사가 오면서 대체된 열람실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기존의 공

간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만해관은 마스터플랜에 의해 전체적인 공간계획 하에 설계됐지만, 시험기간에만 사용하던 임시열람실로 단기간 내에 공간이 대체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숫자상의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변경 전 △대학원열람실 좌석=200석 △스터디룸(노트북 사용 공간)=142석에서 변경 후 △열람실1(1칸짜리 유)=146석 △열람실2(칸짜리 무)=170석으로 바뀌었다. 이는 총 342석에서 316석으로 바뀌어 26석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기존에 4개였던 스터디룸이 지하 4층에 1개로, 노트북 사용공간은

142석에서 18석으로 줄었으며, 보관함은 지하 3층에 총 90개가 있다. 또한 기존에 △무선랜=2개 △유선랜=40개는 △무선랜=2개 △유선랜=12개(추후설치예정)으로 변경되었다.

별관열람실이 지하에 있어서 생긴 출입문 문제는 상록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외부 출입문이 생겨서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하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기문제는 창문을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화장실이 한 층에 남아 각 칸 개씩 있는 점과 중앙도서관이나 만해관처럼 학생들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절차가 없는 점 역시 나중에 분실사고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관열람실은 지난 6일 개관 이후 꾸준히 사용자 늘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처럼 단순 면적은 기존보다 증가했거나 기능적인 측면은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앞으로도 꾸준한 시설상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위치 및 공간적인 측면 등 만해관 4층과의 차이점을 해결책 모색을 통해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2006-1학기 폐강강좌(2차) 공고 및 조정강의 시간표 안내

2006 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정정) 결과 폐강강좌 현황 및 조정강의 시간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폐강공고

- 가. 교양교과목
 - 수강신청 인원이 19명 이하
- 나. 전공교과목
 - 9명 이하 (단, 입학지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5명 이하)
- 다. 폐강강좌 현황
 - 우측 표 참조
- 라. 유의사항
 - 발정 폐강강좌를 수강신청한 학생은 2006. 3. 13 (월)~14(화)까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서 해당교과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 분반강좌 및 조정강의시간표

- 가. 분반내용
 - 분반강좌, 강의시간 및 강의실 변경 내용 등
- 나. 분반강좌 및 조정강의시간표
 - 우측 표 참조

교무처

2006-1학기 폐강교과목 현황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주요대학	주요학과	구분	인원	기준인원	총출석	강사	비고
1	COF401	1 말기외어법	기타기관	교양교과목	학석	11	20	59%	황종연	
2	COF402	1 서사예술공론학	기타기관	교양교과목	학석	8	20	40%	허병삼	
3	EGG101	81 불전이문화과사상	불교대학	불교대학	일교	4	20	20%	공경신	
4	EGG202	81 소설과문학비평	문과대학	문과대학	일교	7	20	35%	허병삼	
5	EGG204	81 산문사조이해	문과대학	문과대학	일교	5	20	25%	김성영	
6	EGG310	81 성곽학원	문과대학	문과대학	일교	4	20	20%	박기민	
7	EGG611	81 유.불.도 철학이해	문과대학	문과대학	일교	2	20	10%	김현수	
8	EGG612	81 기초철학사상	문과대학	문과대학	일교	4	20	20%	명영실	
9	EGG614	81 한국사상사	사범대학	사범대학	일교	7	20	35%	이성일	
10	EGG618	81 제정사치주의	사범대학	사범대학	일교	2	20	10%	장지훈	
11	EGG621	81 시조시이해	사범대학	사범대학	일교	7	20	35%	정영진	
12	EGG626	81 기암미술사	경원대학	경원대학	일교	4	20	20%	오지연	
13	PRG302	82 경제론	사범대학	사범대학	학기	6	30	30%	김종일	
14	PRH405	81 응용수학1	이과대학	이과대학	학기	9	20	45%	이영택	
15	PRH435	84 프로그래밍기초	정보산업대학	정보산업대학	학기	10	20	50%	정성진	81강좌와 합반
16	PRH442	6 창의과학개론	공과대학	공과대학	학기	0	20	0%	방재훈	
17	PRH411	81 기초목질어휘	문과대학	문과대학	학기	0	20	0%	공진자	
18	RGC001	51 지리정보시스템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12	20	60%	이희숙	30강좌 합반
19	RGC001	52 지리정보시스템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12	20	60%	정경희	
20	RGC006	68 EnglishConversation1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3	20	15%	투명미	
21	RGC006	92 EnglishConversation1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5	20	25%	티라니	
22	RGC006	94 EnglishConversation1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3	20	15%	지스틴	
23	RGC006	96 EnglishConversation1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4	20	20%	정영실	
24	RGC006	98 EnglishConversation1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1	20	5%	부근우	
25	RGC008	3 영어리딩2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5	20	25%	박기민	42강좌와 합반
26	RGC008	7 EnglishReading2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9	20	45%	이영택	42강좌와 합반
27	RGC009	10 EnglishReading2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12	20	60%	정영실	
28	RGC011	21 BasicEnglishReading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1	20	5%	정성진	14강좌와 합반
29	RGC012	2 고전미디나	문과대학	문과대학	기교	5	20	25%	황희진	12강좌와 합반
30	CH401	1 문자분광학	이과대학	화학과	전공	4	10	40%	박재훈	
31	ST403	2 통계학개론	이과대학	통계학과	전공	9	10	90%	김정수	
32	NC401	81 컴퓨터구조	정보산업대학	정보산업대학	전공	11	10	110%	이강우	
33	NC405	81 무선통신시스템	정보산업대학	정보산업대학	전공	1	10	10%	안민환	
34	SE303	1 정보시스템시뮬레이션	정보산업대학	정보산업대학	전공	7	10	70%	이동원	

2006-1 조정강의시간표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교과목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핵심교양	COF 312	1 심의과학	J502	G205	강의실변경				
	COF 406	1 중국어문화어학	월 8-9, 목 1-2	월 3-4, 목 1-2	시간변경				
	COF 411	1 음악의이해	월 1-2, 화 1-2	월 1-2(301), 목 1-2(304)	시간변경				
	PRH 302	2 경제학론	월 4-5(303)	월 4-5(304)	강의실변경				
	PRH 305	06.302 경영학개론	월 4-5(303)	월 4-5(304)	강의실변경				
	PRH 309	3 경영통계	월 4-5, 목 8-9	수 3-4, 목 8-9	시간변경				
	PRH 401	1 미적분학1	월 4-5(303)	월 4-5(304)	강의실변경				
	PRH 404	4 미적분학2	월 1-2(302), 목 3-4(302)	월 1-2(302), 목 3-4(301)	강의실변경				
	PRH 407	7 미적분학1	월 1-2(302), 목 3-4(302)	월 1-2(302), 목 3-4(301)	강의실변경				
	PRH 408	8 미적분학2	월 4-5(303)	월 4-5(304)	강의실변경				
학문기초	PRH 405	3 일반생물학1	G205	G205	강의실변경				
	PRH 406	1 응용수학1	월 8-9(304), 목 4-5(304)	월 8-9(304), 목 4-5(305)	강의실변경				
	PRH 407	1 대수수학1	J507	A305	강의실변경				
	PRH 410	1 대역생물학실험	수 6-7, 목 8-9(304)	수 6-7, 목 8-9(305)	강의실변경				
	PRH 423	3 생물통계학	월 1-2(303)	월 1-2(307)	강의실변경				
	PRH 425	81 생물통계학	A307	A308	강의실변경				
	PRH 424	1 공학수리대수학	월 3-4(303), 목 1-2(303)	월 3-4(306), 목 1-2(302)	강의실변경				
	PRH 428	7 생물물리학	수 6-7(303), 목 8-9(320)	수 6-7(303), 목 8-9(320)	강의실변경				
	PRH 444	2 생물물리학	월 1-2(303)	월 1-2(307)	강의실변경				
	PRH 447	5 창의적과학개론	월 4-5(304)	월 4-5(303)	강의실변경				
기초교양	RGC 001	15 지리정보시스템	정경희	정경희	교수변경				
	RGC 001	15 지리정보시스템	정경희	정경희	교수변경				
	RGC 006	46 EnglishConversation1	투명미	투명미	교수변경				
	RGC 006	46 EnglishConversation2	투명미	투명미	교수변경				
	RGC 007	4.6 EnglishReading1	정영실	정영실	교수변경				
	RGC 008	46 EnglishReading1	정영실	정영실	교수변경				
	RGC 010	17-32 BasicEnglishConversation	신규개설	신규개설	신규개설				
	RGC 201	15-21 BasicEnglishReading	신규개설	신규개설	신규개설				
	EGG 205	81 한문시이해	L401	A102	강의실변경				
	LT0001	1 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1차/12차/13차/14차/15차/16차/17차/18차/19차/20차/21차/22차/23차/24차/25차/26차/27차/28차/29차/30차/31차/32차/33차/34차/35차/36차/37차/38차/39차/40차/41차/42차/43차/44차/45차/46차/							

건학 100주년, 총동창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은?

종단 · 학교 유기적 조율 ... 동국중흥센터 돼야

1908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들이 구성된 '광학회'로 출발한 동국대총동창회가 어느덧 1백주년이라는 세기적 전환점에 서게 됐다.

18만 동문을 거느린 거대조직으로서 동국대총동창회의 위상과 기능은 한국 사회에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올해 건학 1백주년을 맞는 동국대의 입장에서 볼 때 총동창회의 측면지원은 절실하다.



논단

이만섭

인도철약졸·전 주간불교신문사 기자 (사)한국여성발명협회 부장

모교발전 위한 측면지원 절실

사립대학은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3주체가 공존하는 전당이다. 재학생과 교직원이 상아탑을 운영하는 주체라면 동창회는 상아탑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는 객체라 할 수 있다. 물론 객체라고 해서 책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단이사회에 총동창회 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자칫 소홀하기 쉬운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동국대를 비롯, 연세·고려·서강·한양 등 주요사립대학 총동창회 임원이 재단이사회 이사로 참여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대학의 흥전에 따라 상황은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의 주요사립대학들은 총동창회와 매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잘나가는 대학일수록 총동창회와 대학 간 긴밀도가 높다.

그렇다면 오는 5월 8일 건학 1백주년을 맞는 동국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동국대는 대학과 총동창회가 서먹서먹하다.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종단 · 재단 조율해 분쟁 없도록

동국대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조계종을 재단으로 하는 종립학교로서 일반사립대학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설립자가 분명한 직선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명운이 명쾌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동국대는 그렇지 못하다. 재단인 조계종의 특성 때문이다. 조계종단은 일반인들이 볼 때 중정이나 총무원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나 실제로는 대단히 복잡한 권력구조를 갖고 있는 다선구조이다. 일찍부터 대중공

의를 존중해온 민주적 방식에 익숙한 불교의 경우는 스님들의 의견이 각각각색일 경우가 많다. 나쁘게 해석하면 일사불란함이 부족하다. 재단이사회의 2/3를 차지하는 조계종스님 이사진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따라서 동국대총동창회는 종단(재단)과 학교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종단(재단)을 조율해 종단(재단)과 재단(재단) 대 학교간 분쟁의 싹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국대 이사진의 불협화음이 최근 몇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동창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조율기능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력활용, 새로운 비전 제시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인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동국대 총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임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종단(재단)의 많은 책임 있는 스님들이 총동창회 회원이다. 바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동국대총동창회는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해 모교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 외에 종단(재단)과 학교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작금의 동국대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 기대와 벅찬 희망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야 한다. 이러한 때 총동창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18만 동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재학생들의 취업, 동문간 유대와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 인력활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종단(재단)의 많은 스님동문을 발굴해 총동창회 및 학교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운영에 전담하는 조계종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총동창회가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사의 1/4을 학교운영위원회(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한 개정사립학교법 개정령이사회 도입을 대비해서라도 총동창회는 종단(재단)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컨트롤하는 동국중흥센터가 되어야 한다.

총동창회, 내부 진통으로 100주년 준비 미흡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학교 발전에 힘써야

우리학교가 올해로 건학 100주년을 맞았다. 건학 100주년을 맞은 것은 동문, 재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 모두가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동창회 상황에서는 예외이다.

현재 우리학교 총동창회는 내부의 갈등과 외부적 마찰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회장의 업무와 권한을 송석구 전총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총동창회 내부에서 총장 출마와 회장선출을 둘러싸고 회원 간에 빚어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창회와 학교 간에도 건학 100주년을

동문과 재학생이 다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협동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만 현재 그런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100주년을 기념해 총동창회가 직접 주관해 행사를 기획하거나 사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총동창회의 한 관계자는 "100주년 관련해 동창회 측에서 특별히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숙명여대의 경우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인 '100주년 전야제 행사'를 총동창

회에서 전담해서 준비하고 있다. 숙명여대 총동창회 박소영 사무국장은 "숙명여대 동문들이 다함께 모여 구심점을 이루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총동창회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주년을 맞는 한해를 1만 2천 동국인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총동창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측은 총동창회와 의견 교류를 통해 함께 다채로운 100주년 사업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 총동창회도 현재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발전이 이바지할 수 있는 총동창회로 만들려는



지난해 11월 열린 비전선도시. 진정한 100주년을 위해서는 총동창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개교기념일을 더 나아가기 위한 협동과 개선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사설

100주년과 총동창회

대학이 발전하려면 여러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 연구, 환경은 기본이다. 우수 교수의 초빙과 우수한 학생의 유치는 기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연구와 환경 분야도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수, 우월성의 말이 빠지지 않는다. 결국 자셰히 들여다보면 대학 발전 개념의 이면에 경쟁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 대학의 발전은 '우리 아닌' 많은 대학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계학문의 중심지가 미국인 것은 미국대학들의 막강한 경쟁력 때문이다. 국가가 전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프랑스나 독일의 대학을과는 달리, 미국의 사립대학들은 전 세계의 교육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적 세일즈를 펼친다. 세칭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몰리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된다. 막강한 재정의 힘은 이 최고들을 교육시키고 연구시켜 다시 '넘보기 어려운 최고'로 만든다.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인들 사이에선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조가 나온다.

미국 대학의 힘은 전적으로 재정에서 연유한다. 하버드 대학의 발전기금 누적액이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과 비슷하다는 통계는 건학 100주년을 맞는 우리학교를 분발하게 한다. 지난 해 100주년을 치른 고려대학교는 2,500억을 모았다. 모두 동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결과다. 뿐만 아니다. 우리 학교가 경쟁해야 하는 다른 많은 대학들도 동문들이 뚝뚝 모교를 돕는 데 열성이다.

그러나 100주년을 맞는 우리 동창회는 여전히 준비중인 모양이다. 발전기금 모금은 고사하고, 회장 선출 문제로 의견이 갈려 좀처럼 단합이 되지 않고 있다. 기념일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모교의 100주년을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이런 시기를 맞아 학교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조그마한 차이는 내일의 엄청난 차이로 발전한다. 한 번 뒤처지면 점점 따라잡기 힘들어지는 게 대학간 경쟁이다.

대학의 발전에는 동창회도 그 역할이 크다. 모교에 발전기금을 많이 내지 못하면 또 어떤가. 마음만이라도 따뜻해지고 싶은 게 전 구성원들의 생각이다. 이번 100주년 행사 중에는 '동국인 한마당'이라는 동문들의 모교방문 행사도 있다고 한다. 물론 100주년 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다. 총동창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해주시기를 바란다.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심, 편집인: 김주관, 부편집장: 정길상, 주편집장: 김지혜, 총편집장: 김지혜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05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
 - 2006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을 필한자입니다.
 - 총 취득학점이 금학기 수학기초점을 포함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자입니다.
 - 평점평균이 4.0이상(F성적 포함)이 될 수 있는 자입니다.
 -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
- 신청기간** : 2006. 3. 20(월) ~ 3. 22(수)
-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야간강좌는 야간강좌 행정지원실)
- 제출서류** : 조기졸업 신청서(소정양식) 1부,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사항**

가. 여름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한 지도 신청가능.

나. 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습니다.

2006년 1학기 집단상담안내

“새로운 시작, 일상의 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내면의 자아'를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의 장입니다.

집단명	참가대상	일시
자신감 향상집단 (초급과정 1)	자신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고, 대인관계와 미래설계를 위한 자신감 향상을 원하는 외국인	매주 화 4-6시
자기탐색집단 (초급과정 2)	내적갈등의 근본원인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자기탐색을 해보고 싶은 외국인	매주 수 3-5시

▶ **리더** : 박범석(에니어그램 상담전문가)

▶ **기간 및 횟수** : 각 집단별 8회기씩 진행
3월28일~5월17일까지, 매주 화(오후 4-6시)·수(오후 3-5시)

▶ **접수 문의 및 장소** : 구내전화 (☎ 3931)
3월 22일·수요일까지 신청순 10명 접수(각 집단당)
본관 2층, 학생상담센터(집단상담실), 맨해튼 공용세미나실

▶ **초급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은 수료증 발급(해택 및 특전)**

봄학기 어학 특강 (1차)

< 강의기간: 2006. 3. 20(월) ~ 4. 14(금) >

TOEIC & 중국어 강좌

중국어 (3. 20 ~ 4. 14 (금))		TOEIC
초급	고급	HSK 6급 완성
재외처 중국어 대상정		

▶ **강좌 안내**

- 교내 집중 토익 특강 (TTC)**
 - 1인 1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도모
 - 영어능력평가 시험 접수 향상
 - 국제무대에서 위만한 의사소통 실력
 -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통한 탄탄 대학 생활
 - 기간: 2006년 3월 20일 ~ 2006년 12월 8일
 - 금액: 697,000원
- 중국어 고급**
 - 학원 3년 분량을 1달 만에 끝내기
 - 이력서에 중국어회화 등급이상 보장
 - 대상: 중국어 6개월 이상 배우신 분
- 재외처 중국어 대상정**
 - 학원 9달 분량을 1달 만에 끝내기
 - 이력서에 중국어회화 등급이상 보장
 - 대상: 오해받은 중국어를 배웠는데 중국인 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않은 분
- DU ABC Cyber TOEIC**
 - Computer Adaptive Testing 방식 적용
 - 동영상 강좌 제공
 - 취약 과목/유형 & 레벨 업 학습
 - 실전 모의 평가 (1학기 당 3회 제공)
 - 잔단 테스트 1 회 제공
 - 분석 report, test 및 homework 결과 열람
- 중국어 초급**
 - 학원 2~3달 분량을 1달 만에 끝내기
 - 중국인 초중 대화 / 100% 회화식 수업
- HSK 6급 완성**
 - 회화와 HSK 공부를 동시에 하기
 - 초단기에 6급을 따기 위한 집중 연습
 - 강사위원의 강의가 아닌 학생참여 방식의 강의
 - 대상: 중국어 5개월 이상 배웠던 분

문의 :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교내 3927/3935 job@dongguk.edu

수준별 원어민 영어 강좌

Level	초급	초·중급	중급	고급
강좌명	Conversation I	Conversation II	Conversation III	Somatology (음·생체학)
강의 시간	8:00 ~ 8:50 (월·화·목·금)	1:00 ~ 1:50 (월·화·목·금)	17:00 ~ 17:50 (월·화·목·금)	(수 9:00-10:30, 목 11:00-12:30)
강사명	Roderick, Justin, Tiffany, Aaron, Mathew, Sieve Liu, Micozheng, Modesto, Michael			

▶ **원어민 영어회화**

- 원어민 영어회화** :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수업 선정
- Somatology** : 심도있는 주제별 필적자는 특별 영미강좌
- Interview & Presentation Skills** : 취업준비를 위한 비즈니스 영어에 관심이

▶ **강좌 안내**

접수처	동국대학교 해외관 1층 국제교육관 사무실
기간	접수기간: 2006. 3. 6 (월) ~ 3. 17 (금)
접수	문의전화: 2260-3550 / 3471 (문의시간: 오전 9:00 ~ 오후 5:00)
문의	1. 방문접수: 신청·은행수납 2. 이메일접수 (je@dongguk.edu) : 이메일(신청서, 이름, 학번, 학과, 전화번호) + 문명 송금(문인비율) 3. 수강료 납부계좌: 조흥은행 371-010283 (예금주: 국제교육원)

☎ 1. 동국대 재학생 외 외부수강생 (대학원생 포함)은 수강료 1만원 추가
2. 환불 - 개강 전 100%환불, 개강 후 3일 이내 80%환불, 개강 3일 후 환불 불가
(※ 중국어강좌는 개강 후 환불 불가, 특연은 별도 환불 규정에 따름)

● 원어민 영어회화 및 특연 시외비강좌 동시수강시 인원제한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 소개

“100년을 넘어 세계를 향해 달리자!”

학생처(처장=조의연·영어영문학) 진로교육상담팀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100명의 핵심인재 집중 육성을 위해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엘리트 인재의 유치와 우수 인재 배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은 우수인재를 엄선해 세계 최고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IVY리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이다.

이번 장학프로그램은 로스쿨과 MBA를 제외한 미국의 분야별 대학원 평가 순위 상위 5위 이내의 대학에 입학허가를 취득한 자 또는 입학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1년에 약 10명씩 향후 10년간 총 1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고, 매년 최대 5만 달러를 3년간 지원한다.

분야별 대학원 평가 순위는 미국 대학평가로서 최고권위를 가진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실시하는 대학원 평가를 따르며, 이 순위는 매년 그 해의 전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은 크게 Engineering, Medicine, Education, Social

Sciences & Humanities, Health, Public Affairs, Fine Arts, The Sciences, Library Sciences의 7개 분야에서 세부전공으로 나뉜다.

2005년도 평가기준으로, Engineering의 경우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스탠포드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조지아공과대학(GIT), 일리노이대학교 어버너-شم페인캠퍼스가 있으며, Public Affairs분야에는 하버드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예일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미시간대학교 앤아버캠퍼스 등이 있다. 자세한 세부학과와 순위는 U.S. News & World Report의 홈페이지인 www.usnews.com에서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우리학교 학부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이며,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이다. 따라서 2007학년도 장학 대상자의 경우는 2003년 2월 이후 학부 졸업생 또는 2007년 졸업 예정자이다.

지원자격인원은 △졸업학점 3.8 이상 또는 학과 상위 10% 이하 △GRE 1,400 이상 △CBT 250 이상

△해당 대학원의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입학이 확정된 자료 예정돼 있고, 차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석·박사 학위를 위한 유학기간은 최대 7년으로 제한한다. 제한기간 내 박사학위 미취득자는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내용 및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점차 보완할 예정이다.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은 9월에 신청자 접수 및 선발에 대한 시행공고가 돼서, 12월 말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해 1월에 입학허가 확인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하버드대의 인문과학대학원장인 Theda Skeocpol 교수는 서신으로 "동국대학교 출신 학생들의 하버드대 입학에 적극 환영하며, 대학원 입학시 매년 5명까지 연간 3만 달러씩 3년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조의연 학생처장 인터뷰

“미래 위해 노력하는 파워엘리트 되길”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이는 우리학교 학부 출신 학생을 미국 IVY리그 대학 등 상위권 대학의 대학원 진학 시 매년 최대 5만 달러를 3년간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이다.



조의연(영어영문학) 학생처장

건학 100주년을 맞아 시행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평소 유학에 생각이 있던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조의연(영어영문학) 학생처장을 만나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 신설이 갖는 의미는?

= 이번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우리학교의 미래인재 양성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인재가 되려면 꼭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류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면 학생 스스로의 발전, 나아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학교 출신 학생이 대학원 공부를 하거나, 일하기 위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타 주요대학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신설은 해외 일류대학과의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 핵심인재로서 도약할 수 있는 첫시도이다.

-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 지난해 9월 중앙일보에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인재, '파워엘리트'에 대한 분석으로 기획을 연재한 적이 있다. 여기서 '파워엘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우리학교는 '파워엘리트'라고 불릴만한 핵심인재를 키우는 데 인색한 편이었고, 이런 핵심인재는 학교 전체의 평가를 위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에 진출하는 것을 '학교'에서 하자고 생각했다. 100주년을 맞아 우리학교가 새롭게 세운 인재상인 창조력, 도전정신, 도덕성과 리더십에 부합된 프로그램으로 소위 '중위권'이라고 하는 인식을 깨기 위해 착안했다. 작년 10월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총장까지 이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

-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당부한다면.

= 학생들이 해외를 찾는 경우는 대부분 어학연수를 위해서가 많은데, 이런 좁은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를 응용해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에서 할 수 있다면, 이를 실천하길 바란다.

이번 제도는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부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졸업 이후의 미래를 미리 설계하기를 바란다. 유학을 위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GRE공부도 하고 성공한 선배를 초빙해 조언을 듣는 등 스스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위해 진취적으로 노력하면 좋겠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IVY리그대학과 교류 활성화 기대 2학기부터 구체화 될 예정

앞으로 우리학교와 미국 IVY리그 5개 대학과의 학술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우리학교 IVY리그 방문단이 IVY리그의 5개 대학을 방문한 성과이다. IVY리그 5개 대학은 흥기삼 총장과 이석현 동국일산병원 의료원장 외 4명이 방문했다.

방문단은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학교 교수 1인 매년 연청연구소 초빙학자 파견 합의 △Korea Institute에 매년 대학원생 2~3명과 교환교수 1명 파견 합의△하버드 법대와 우리학교간의 Law School 교류협력 추진 △올해 여름 우리학교 교수 하버드 대학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파견을 합의했다.

또한 하버드 대학원을 방문해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하는 우리학교 졸업생 가운데 1년에 3명을 선

정해 1인당 5만불의 장학금을 3년간 지원하는 'Power Elite 장학제도'를 설치하는 것을 합의했다. 'Power Elite 장학제도'는 2007년부터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브라운대학과는 브라운대의 아시아지역학, 한국학, 영화이론, 인문학 교수들과 우리학교의 영화제작분야 교수, 감독, 연기자를 서로 파견하는 상호 교환초청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합의했다. 예일대에서는 한국학과 영화, 인문학을 대상으로 한 교수교류프로그램 설치를 합의하고, 예일대 국제 교류처장을 만나 예일대에 입학허가를 받는 학생에 한해 Power Elite 장학생을 파견하는 것을 논의했다.

한편 12일에는 코넬대를 방문해 인문학 관련 두



우리학교 흥기삼 총장과 하버드대 Summers 총장이 지난 12월 하버드대에서 학술교류를 협의했다.

대학간의 긴밀한 교류를 인정하는 '인문학 관련 MOU' 체결에 동의하고, 코넬대 Wason Library Collection의 인문학 서적을 중심으로 우리학교 중앙도서관간의 도서 상호교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국제교육원 김영민 원장은 IVY리그 대학과의 학술교류와 관련해 "지난 1월부터 각 대학과 구체적인 교류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2학기에 교류계획이 좀 더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우리는 동국 가족

모교의 응원가로 형을 따라 부르던 노래



오윤식 동문

‘우와우와와 우리동대 남산코끼리~’
우리학교 야구부가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1980년대 초반. 경기가 벌어지는 야구장을 찾아 대학생인 형과 아무것도 모른채 형을 따라온 초등학교 동생은 응원가를 부르며 하나로 뭉쳐 우리학교를 응원 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초등학교생이었던 꼬마는 어엿한 성인이 됐고 형과 함께 불렀던 우리학교 응원가는 모교의 응원가가 됐다. 야구장에서 ‘용맹정진 동대’를 외치던 그 주인공은 바로 형제지간인 오현식(국교 86졸) 동문과 그의 동생인 오윤식(지교00졸) 동문이다.

형제는 모두 우리학교의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마치고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각자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지만 지금도 여유가 생길 때면 형제끼리 모여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회상하곤 한다. 오윤식 동문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형에게 학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학교를 갖 입학해서도 학교 시설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며 “학교 응원가도 초등학교 때 이미 알고 따라 불렀다”며 웃는다. 야구 구경 가느라 수업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진양상이 근처에 ‘밀주’를 사먹었던 때를 회상하는 형의 추억에 못지않게 동생인 오윤식 동문도 답사를 다니며 전국 이곳저곳에서 동계들과 보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두 동문은 지금까지도 학교와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오윤식 동문은 “졸업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동계들과 만나 얘기도 나누고, 시간을 내서 3박 4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며 우리학교에서 보낸 시간들을 통해 얻은 마음의 재산들을 하나 둘



2002년 2월 대학원 학위수여식 가족사진. 가운데가 오윤식 동문, 왼쪽이 형인 오현식 동문

씩 꺼내놓는다.

오랜 시간동안 교사의 꿈을 품었던 오윤식 동문은 지금 교사가 된 것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이 보여줄 기회가 다가온 것은 사회에 진출해 있던 학교 선배들이 지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라며 학교와 선배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다. 또한 모교에 대해 말할 때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학교가 좋아서 늘 대학에 대해 말할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어린 학교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시설이나 교육면에 투자를 많이 해 발전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며 “학생들도 100년 동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과 대학생활을 해나가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남산 기슭의 정기를 이어받아 정진을 꿈꿔왔던 동국 100년의 아침이 밝았다. 말 한마디와 눈빛 하나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오윤식 동문의 모습에서 앞으로 다가올 동국 100년의 희망찬 기운을 새뜰게 느낄 수 있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이야기 동국 100년

사찰들의 힘으로 태어나다

② 명진학교의 설립



명진학교 개교당시의 교사(1906).

1906년 초, 정부의 사서관리서가 있던 원흥사 내에 불교연구회가 조직된다. 이곳에서 불교연구회의 홍월초·이보담 등과 각 사찰의 대표자들이 모여 전문학교 수준의 불교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전국 16개 이상의 사찰에서 기금을 출자하기로 결의하였다. 또 2월 5일에는 이보담 등 9명의 명의로 내부(內部)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월 19일에 학교 설립을 정식으로 인가받았다. 이와 함께 12개조로 이루어진 학칙을 제정하고, 교명과 교훈을 확정하였다.

먼저 학교의 이름을 ‘명진(明進)’으로 정하였는데, 명(明)은 《대학》<총설> 편에 나오는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며, 진(進)은 ‘정진(精進)’에서 빌려온 것이다. 또 교훈을 ‘자비수선(慈悲修善)’으로 정하고, 원흥사를 교사(校舍)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학교 설립절차가 마무리되자 불교연구회는 학생 모집 요강을 작성하여 각 도의 주요사찰에 학생모집을 의뢰하는 통문(通文)을 발송하였다. 당시 수업연한은 2년이었으며, 3개월에서 1년까지의 보조과를 부설하였다. 또 불교교과 외에 지리·산술·이과·역사·주산·일어·측량학·철학 등의 신학문 교과를 편성함으로써 근대적 교육방법에 의한 승려교육을 꾀하였다. 정원은 학년 별 35명으로 1학년과 2학년을 합쳐 70명으로 정하되, 보조과는 20명으로 하였다.

그해 4월 10일 홍월초를 초대 이사장에, 이보담을 초대 교장에 선출함으로써 5월 8일에는 최초의 근대 불교학교인 명진학교가 정식 개교하게 된다. 1899년 동대문구 창신동에 창건된 원흥사는 개교당시에 교실과 강당은 물론 장서당(藏書堂)과 기숙사, 운동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또 처음 세워진 근대 불교학교인 만큼 강사진은 국내 최고의 불교학 권위자와 신학문 전공자로 구성되었다. 명진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홍월초·이보담·이명철 등이 전임으로 임명되었고, 윤치호·서광범·어윤중·김우택 등 신학문을 섭렵한 쟁쟁한 인사들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명진학교가 근대적 불교학교로 발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인설·이능화·장지연 같은 원로들도 강사진에 참여하거나 특강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1908년에 사학의 말살과 폐지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령’을 공포하면서 명진학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동국의 도전정신, 히말라야를 오른다!

원정대 발대식 오는 21일 ... 동판부조 제막식도 함께

오는 21일, 10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 원정 발대식과 박영석(체교91졸) 동문 산악그랜드슬램 달성 기념 동판부조 제막식이 열린다. 에베레스트 원정 발대식은 오전 11시 교무위원회실에서, 동판부조 제막식은 그 후 중앙도서관 앞에서 한 시간 동안 치러진다. 총장과 이사장을 비롯해 박영석 동문과 히말라야 원정대원, 이인정 대한산악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영석 동문의 16명으로 이뤄져 있는 원정대의 이름은 ‘PARK’S EVEREST CROSS EXP’이다. 주최는 우리학교와 박영석 세계탐험협회이고 △LG화재 △노스페이스 △SBS △동아일보의 후원을 받는다. 원정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정상 등정일은

개교기념일인 5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8,848m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획단’하는 것이고, 중국의 에베레스트 북릉으로 등반, 네팔의 남릉으로 하산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동문이 개교기념식에 히말라야 정상을 등정하고 이를 생중계함으로써 동국인의 기상을 세계 최고봉에 새기며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리학교의 미래 비전이며, 인재양성과 교육 목적 중의 하나인 ‘YOUNG CHALLENGER’를 실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후배들에게 박 동문의 도전 정신을 본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모든 산악인들의 꿈인 산악그랜드슬

램을 세계 최초로 달성한 박영석 동문의 동판부조는 박영석 동문의 불굴의 도전정신을 후배 학생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제작됐으며, 2000년 7월 30일 8,074m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의 순간이 담겨져 있다. 브로드피크 정상 배경 뒤에는 히말라야 14좌 완등의 대미를 장식한 K2봉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판의 크기는 가로 315.5cm, 세로 194cm로 명예교수인 조승환(미술학) 교수가 제작했다.

동판부조의 목적은 자랑스러운 박영석 동문의 세계 최초 산악그랜드슬램 성공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박 동문의 좌우



2000년 7월 브로드피크 정상에 선 박영석 동문의 모습

명과 같이 우리학교의 도전정신을 새겨 오랫동안 기리고자 제작했다.

박 동문은 우리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2001년 8월 산악인이려면 누구나 꿈꾸는 히말라야 14좌를 최단 기간에 올라 세계 최고 산악인 반열에 올랐고, 그 뒤 7대륙 최고봉과 남극점, 북극점 원정에 성공해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우리 부처님 이젠 더 좋으시겠네. 제자, 보살들 모두 함께 있으니...”

정각원, 후불목각조각상 안치 ... 분위기 더욱 밝아져

정각원이 새롭게 단장됐다. 지난해에 외부 보수공사와 아울러 진행되었던 정각원 내의 불단 장엄불사(맞춤, 후불목각탱화, 탁자가 방학 중인 지난 1월 4일 완성되어 면모를 일신했다.

이 불사는 부처님을 호위하는 사천왕과 보살,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수 있는 게 특징. 금불상 한 분만 모셔져 있던 예전에 비해 훨씬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돈다.

특히 후불목각조각상은 국내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예술품이라고. 정우택 박물관관장(미술사학과)은 “전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수작으로서 회화성, 현실감, 강한 입체감이 그 특징”이라고 하면서 “보면 볼수록 부처님께 귀의하고픈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걸작”이라고 평한다.

이사장 현해 큰스님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이 장엄불사는 우리 학교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건학 100주년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청원 스님(경주캠퍼스 미술학과 교수)의 1년간에 걸친 역작으로서, 발명특허인 개금채색 기법을 사용했다.

열린글터

효율적인 수강신청 위한 제안

드디어 새로운 학기다! 캠퍼스를 장악한 새내기들의 상큼한 움직임을 보며 들뜬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고,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중앙도서관을 찾기도 다닐 본인을 생각하면 뿌듯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 보면 새로운 학문의 바다에 빠지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수강신청 정정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다. 우리 학교가 개강한 3월 2일은 목요일인데,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그 다음 주 월요일(3/6)부터 수요일(3/8)까지다. 만약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을 하는 전공과목을 정정기간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

신청했다면, 이전 수업을 모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3월 9일 목요일 수업에 간다고 해도 전 수업을 모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교재준비가 어렵고 보통 첫째 날 정해지는 발표 수업 명단에서도 소외당하게 된다. 즉, 2주에 걸쳐서 수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은 제안한다.

일단 모든 강좌의 첫 수업은 진도를 나간다고 강의를 대한 소거나 그 수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얘기를 나눠야 한다. 첫 수업을 듣고 나서 강좌를 정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단순히 강의 목표나 수업 스케줄 정도만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해당과목 교수의 간략한 이력과 함께 실제로 강의를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강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는 동영상 등을 함께 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굳이 후에 강좌를 듣고 수강을 정정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신중하게 강좌를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실효성에 의문을 들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입시 인터넷 강의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착돼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입시교육에서도 가능한 시스템이 더 넓은 학문을 배우는 대학에서 불가능하다면 그 누구라도 비슷지 않겠는가?

민정호(문과대 국문3)

'작사랑 애국' 이제 그만합시다

의 자존심이니 하며 지켜세우던 황우석 박사와 관련해서도 그를 지지하는 집단들은 지금도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황우석 교수님의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과연 '애국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벌어지는 행위들이 진정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만병통치약이어야 할까? "아니, 애국은 지극히 당연한 가치 아닌가?"라며 의아해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진정한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애국이라는 이름 앞에 벌어지는 역설적인 현상 앞에서 도리어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 친일세력은 뗏뗏하게 토지반환소송을 하는 반면, 일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여전히 냉대 받고 살아 가는 현실은 애국을 위해서라면 무언가 아귀가 안 맞지 않은가? 더군다나 분단시대를 살아온 '한 곳' 상충임을 고려하여 지난 해 삼일절에 "빨갱이를 처단하자"며 시청 앞에서 10만인파가 모인 구국기도회를 기억해 보자. 참가자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무엇보다 연단에 선 사람들의 말에서 빠지지 않았던 구절은 '대한민국을 위해서'였다. 애국이라는 가치 앞에 북한은

오로지 적이고, 미국만이 동지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가끔 섬뜩하기도 했다.

특히 분단시대를 살아오면서 내면화한 남이나 북이나 같은 이분법적인 OX논리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무수한 집단들을 역사 가운데 잊혀지게 만들었다. 지난 달 28일, 한 지상파에서 방영했던 '조선의용대의 발자취'도 그 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공산당 정규군대인 팔로군과 합쳐 태항산에서 일본군에 맞서 저항한 단체임에 분명하지만, 남북 정권차원의 세력관계를 통해 잊혀진 '비운의 주인공'이 돼 버렸다. 먼 타향에서 소리 없이 스러져 간 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보며, 그동안 스스로 애국의 범위를 너무 좁게 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만 깊게 새겼다.

진정으로 애국을 원한다면 일국 중심 사랑에서 조금은 더 포용력 있는 애국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내 나라를 위한 애국도 좋지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더 넓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은 애국이라는 가치로 수많은 이들이 잊혀져 온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만을 위한 작사랑은 오래 가지 못한다.



학생논단

최우진 사과대 사회4

삼일절이라고 온통 TV에서 국가대표팀 축구 평가전만 방영할 때, 문득 '애국'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 한 시사주간지에서 읽은 내용이었지만, 가끔 애국이란 이름 앞에 소름 돋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특히 한 광고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두고, '4천 몇 백만 짜 붙은 악마'로 규정하는 자막을 보고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붙은 악마여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한 때 언론을 중심으로 노벨상 후보니, 대한민국

새 각오를 다짐하며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 했던가. 새해 다짐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몇 달 만에 찾아간 학교의 나무들은 가지에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 눈을 달고 있다. 마치 이 또한 겨울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은 피리를 내리고 어느새 찾아온 봄바람과 함께 새 학기도 다가왔다. 한동안 못 봤던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간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람이 많은 계단에서 밀

려 내려오듯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 한동안 낯설었던 2006년도 익숙해져간다.

이쯤에서 잠시 한숨을 돌려 연초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언제나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면 오래 '이런데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학점관리 잘해야지', '책 많이 읽어야지' 등의 다짐을 한다. 항상 계획의 내용은 변함없이 없는 것 같다. 또한 매년 처음엔 모두 지킬 듯 의욕에 차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

마 이러한 일들이 비단 나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 듯싶다. 대부분의 학생들 또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은 자신이라고 했다. 이 때 문일까? 세상에서 가장 지켜지기 힘든 일이 자기와의 약속인 듯하다. 이번에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나름대로 꿈꿔왔던 대학생활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 알차게 보내리라 다짐한 재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동국인들이 모두 올 한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길 바란다.

최인지(문과대 독문2)

바람직한 공강 시간 활용하길

학교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공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새내기 시절에는 공강 시간이 1~2시간이 있으면 막연히 학과실이나 학교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거나 혹은 중도에 있는 컴퓨터실을 이용하면서 인터넷을 하기도 하였다. 그 때는 마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행동을 하곤 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1~2시간은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중앙도서관이나 관해관을 이용하여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내주셨던 과제들을 하면 효율적인 것이다. 또한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였으나 수강을 하지 못했던 강의 혹은 다음 학기에 수강해 보려는 강의를 청강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졸업에 위해서는 토익 성적이 필요한데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영어공부나 한문 공부 혹은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따로 수업이 끝난 후 시간을 내는 것보다 공강을 이용해서 한

다면 더 효율적인 것 같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공강 시간을 잘 활용 못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새내기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것 같다. 학교를 1년에서 2년 정도 다니다 보면 어떤 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점점 알게 되는데, 특히 새내기들은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막연히 놀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공강 시간을 축내지 않고 계획성 있게 활용한다면 좋은 학점 관리도 할 수 있고, 또한 보람찬 학교생활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공강'을 적절하게 이용해 한층 바람직한 대학 생활을 보내기를 바란다.

김선주(이과대 수2)

독자 사진첩



'함께' 이기에 ...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땀방울에 송고함을 아는 당신.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함께하는 서로가 있기에 언제나 우리의 무대는 아름답다. 그리고 동국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 백상승원단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매 분량의 글 등을 여러면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포리소

성형수술과 얼굴값에 대한 기대

오후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조그만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시선을 땀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며 잠시 단상에 빠진다. 여고에 근무한 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다. 그새 우리 딸이도 부쩍 커서 툰 살을 걱정하고 기율을 자주 보는 중3 소녀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건성피부나 아토피 또는 늘어난 뺨살을 주제로 학생들과 얘기하는 것도 별스럽지 않고, 이때만큼은 성형수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 어색하지 않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번쯤 자기 용모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팔뚝신의 꽃미남 꽃미녀일 것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여론 조사에서 24.6%는 용모가 직장생활에 조금 영향을 있다고 했고, 46.2%는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2%만이 전혀 영향을 없다고 응답했다.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여론조사에서 남자는 9.3% 여자는 22.3%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성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는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심본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지는 건 왜일까.

블로그에는 '유심소작(有心所作)' 또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에 따르면 얼굴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 습관에 달려있는 것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나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너무도 유명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잘사는 것'은 관상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청찬과 격려를 받다보니 귀한 행을 하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그 결과 잘살게 되는 것이라고 '상론(相論)'에서 역설했다. 즉, 사람의 용모는 내면의 마음과 생활 습관이 밖으로 드러남으로써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은 '얼[정신]의 풀[모양]' 혹은 '얼[정신]의 굴[둥글=통로]'이라고 한다. 우리말에 '꿀꿀 한다' 혹은 '얼굴 값 좀 하라'는 말이 있는데, 얼굴이 잘났음에도 행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용모와 마음의 상관관계를 상기시켜주는 말이다. 현실적 필요성이나 급한 마음에 우선 성형으로 얼굴을 고치더라도 그에 걸맞은 마음씀씀이와 생활습관으로 얼굴값을 감당한다면 굳이 성형을 타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학주
사범대학부속고교 교법사

2007년도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2학년(00명) 남학생
2.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89. 2. 28 ~ '81. 3. 1일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3. 13 ~ 4. 25
4.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지원서 / 수능성적 증명서(원본) 각 1부	
· 대학 1학년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각 4부	
· 컬러사진(4 x 5cm) 5매	
·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매	
· 가산점 증명서류 1부	
5.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2007년도 학군사관
지원서 교부 / 접수	2006. 3. 13 ~ 4. 25
체력검정 / 인성검사	2006. 4. 26 ~ 5. 10
신체검사 / 면접평가	2006. 5. 11 ~ 5. 24
신원 조 회	2006. 6. 19 ~ 8. 25
최종합격자 발표	2006. 9. 1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6. 9. 1
7. 특 점
 -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터득할 수 있다
 - 재학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 전역 후에도 일반 입대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 장교 기준에 준하는 급여 및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기지원시 국내외 민간대학 위탁교육, 미국 등 우방군 군사교육등의 교육혜택이 주어진다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tel 02 - 2260 - 8537)

제112(동국대) 학생군사교육단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다양한 정보로 풍부한 지면구성 긍정적 독자들의 참여 이끄는 신문되길

약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동대신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칼럼은 '금주의 동국인'이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학생이 좋은 일을 해서 학교를 빛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재학생이기는 특정한 측면에서 돋보이는 학생이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지난 신문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동국인을 위한 정보가 풍부했다는 것이다. 학내사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정보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신문은 사실전달이 주된 역할이지만 거기에 독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더하면 그 가치는 몇 배로 올라가기 마련이다.

반면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다. 독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신문은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독자와 호흡할 때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 알고 보니, 지난 호에는 퇴임교수 인터뷰로 인해 여론면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므로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화면이 약간 아쉬웠는데 각 면이 면 성격에 좀 더 충실했으면 한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낱말퍼즐 등 약간의 오락성이 가미된 칼럼을 통해 독자들에게 재미를 제공하고,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면 한다. 또한 1면에 '맑은소리 좋은생각'이 들어가면서 기존과 비교해볼 때 편집이 다소 파격적이어서 신선했는데, 앞으로도 다양하고 효율적인 편집을 선보였으면 좋겠다.

함초롬(사과대 행정2)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3/13)	손만두국 (2000)	부대찌개 (2000)	된장찌개 (3200)	사골콩나물해장국 (2300)
	치즈돈가스 (2500)	불고기 (2000)	만두전골 (3500)	철판오삼불고기 (2900)
	제육비빔밥 (2000)	순대볶음 (2000)	코다리주조림 (3500)	돈갈비김치찌개 (2900)
화 (3/14)	육개장 (2000)	비지릭순두부찌개 (2000)	된장찌개 (3200)	양지떡국 (2500)
	참치김치덮밥/후라이 (2000)	치즈볶음밥 (2000)	살랑탕 (3500)	케찹살랑탕/라볶음수육 (2900)
수 (3/15)	팔보채 (2000)	오징어볶음 (2000)	삼겹살김치볶음 (3500)	닭개장 (2900)
	갈비경단백반 (2000)	갈비탕 (2200)	된장찌개 (3200)	얼무된장국 (2300)
목 (3/16)	쇠고기양송이볶음밥 (2000)	돈육고구마김장 (2000)	떡볶이불고기 (3800)	떡볶이사태떡볶이 (2900)
	안동찜닭 (2000)	산채비빔밥 (2000)	이면수국이 (3500)	떡볶이치즈부대찌개 (2900)
금 (3/17)	사골우거지탕 (1800)	짬뽕수제비 (2000)	된장찌개 (3200)	쇠고기무국 (2300)
	오징어덮밥 (20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오징어돌솥밥 (3500)	오무라이스 (2900)
	리조육 (2000)	모듬볶음밥 (1800)	닭도리탕 (3500)	쇠고기두부전골 (2900)
토 (3/18)	돈갈비김치찌개 (2000)	김치만두국 (2000)	된장찌개 (3200)	김치순두부찌개 (2300)
	함박스테이크 (2500)	하이라이스 (2000)	육개장 (3500)	우거지갈비탕 (2900)
	참치볶음밥 (2000)	닭조림 (2000)	불나물비빔밥 (3500)	떡볶이김치탕 (2900)

대학생이 읽어야 할 고전 ① 칸트의 3대 비판서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폭넓은 문제의식으로 객관성과 보편성 추구 ... 오늘날에도 유효한 철학적 의문 제시

흔히 고전이라 하면 해묵은 이야기책이나 옛날 사람들이 쓴 작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고전은 오랜 시간을 거쳐 널리 애독되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책이다. 이에 우리신문에서는 각 학문 분야별로 고전으로 불리는 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이것은 칸트 자신이 철학 이론을 정립함에 있어 폭넓은 문제의식과 깊이 있는 탐구자세로써 임함에서 기인하며, 또한 철저한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그의 정신에서 결과한다. 칸트 철학의 체계는 크게 자연의 객관적 법칙, 인간 행위의 실천적 법칙, 그리고 아름다움의 법칙 및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루고 있는 3대 비판서로 분류된다.

자연의 객관적 법칙의 정당성을 논하고 있는 ‘순수이성비판’은 칸트의 철학의 방향을 전통적 이론의 전승이라는 역할로부터 완전히 끊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근대 자연과학에서도 자연을 탐구할 때, 자연 법칙은 자연의 ‘사물 자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칸트는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결코 사물 자체의 본질을 인식할 수는 없고 단지 사물의 ‘현상’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언명한다. 우리의 인식 능력을 사물 자체에까지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논함으로써 전통적 이성론(합리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칸트는 자신의 이러한 학문적 태도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칸트의 윤리학과 현대 윤리학에서 여전히 중요한 근거를 형성하고 있는데, 칸트의

윤리학 이론을 체계화한 책이 바로 ‘실천이성비판’이다. 현대 윤리학을 형성하고 있는 두 개의 근본적 이론을 말한다면, 그것은 공리주의적 윤리학과 칸트의 윤리학이다. 공리주의가 인간의 경험적 감정 및 계산적 이기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시인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것을 각자 스스로에게 의무로 명명하는 윤리학이다. 이것이 바로 정언명법(定言命法)이다.

흔히 인간의 고차원적인 마음 및 문화를 우리들은 진선미(眞善美)로 구분한다. ‘순수이성비판’이 진의 영역을 논한다면, ‘실천이성비판’은 선의 영역을, 그리고 ‘판단력비판’은 미의 영역을 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판단력비판’에서 칸트는 우리가 아름다움 및 숭고함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논하며, 나아가 아름다움 및 숭고함을 느끼는 마음은 전체로서의 자연의 궁극적 목적과 관계되어 있다. 칸트의 예술철학 및 미학 이론은 근대 미학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은 웅변한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독파한다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이 책들에 쉽게 접근하는 길들을 참조하면서



파악을 시도한다면, 그 책들에서 논하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들이 세계를 생각할 때 정착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나아가 현재에도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소재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최인숙
문과대학 철학과 교수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동양화

송혁

북한산 새벽길은 찬물 맛이다.

그냥 그렇게 버릴 것은 모두 버리고 맨손으로 사는 겨울나무며 바위 돌맹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처음도 끝도 없는 물소리, 바람소리나 하나 있음도 없음도 없다.

북한산 새벽길은 동양화 맛이다.

참으로 우리네가 오래도록 잊고 살던 그냥 그대로의 순수경영. 마음의 길에서 길로 열려가는 자유한 미명의 하루가 있거니. 미움이나 슬픔으로 땅을 치며 사는 자에게, 산울림을, 있음도 없음도 없는 산울림을 누가 보내는가.

- '광복 30주년 문학전집' 6권 (정음사, 1975)

해묵은 책들을 뒤적여 보니, 오래 잊고 지냈던 스승 한분의 이름이 눈에 띈다. 송혁(宋赫:1935-1985). 가히 시인의 고장이라 해도 좋을 전북 고창 분이다. 폭 한권의 시집을 남기고 떠났지만 이 나라 현대불교시를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이자.

어린 시절, 산문(山門)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운명의 주인공답게 승속(僧俗)의 율타리쯤은 자유로이 넘나들던 분이였다. 누가 인사를 하여도 따스한 눈빛으로 미소하고, 늘 나직한 음성으로 찬찬히 이야기하던 얼굴이 영락없는 스님의 그것이었다. 선생의 말씀과 몸가짐을 듣고 볼 때마다 내 어린 마음엔 문득 문학의 행로에 대한 어슴푸레한憧憬이 어른거리는 했다. "시(詩)는 문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하는 것이구나."

이 시 '동양화'는 선생의 그러한 문학과 인생을 참으로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다. 수묵화 같은 순수세계를 경영하는 수단으로서, 한량없이 크고 넓은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구도의 방편으로서 시를 갈고 닦던 사람인 까닭이다.

새벽산길에 찬물 맛이라 언명한 첫머리도 예사롭지 않지만, 그 안(山)길 혹은 물, 바람에서 '나 하나 있음도 없음도 없다'는 진경묘유(眞空妙有)의 깨달음을 얻어내는 일이 어디 여간한 공력의 산물이라.

병마가 아니었으면 더 깊고 그윽한 시의 심연을 보여주셨을 터인데, 선생의 '오십 생애'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유재림
시인·서울예대 교수

지난 1420호에서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의학과 조민오 교수의 이름을 '조민우'로 바로 잡습니다.

연구소를 찾아서 - ① 불교문화연구원

지구촌을 아우르는 불교연구의 중심

1962년 3월 불교문화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한국의 불교학계를 대표하며 우리사회 불교학 발전의 선봉에 서있는 불교문화연구원(원장=박경준·불교학, KOREA Buddhist Research Institute).

우리학교 연구소 중 가장 규모가 큰 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허상만)으로부터 인문학 부문 중점연구소로 지정돼, 대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9년간 약 21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우리학교 측의 대응투자까지 앞으로 9년간 약 40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이런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 주제는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 연구'로, 이는 지역학적 개념으로서 아시아 불교를 아우르는 의

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박경준 원장은 "중점 연구소 지정은 우리학교 불교연구이념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런 연구를 통해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부수탁집행프로그램으로는 '한국 3개교교생태문화프로그램'이 있다. △우리학교=불교 △사경대=카톨릭교 △한신대=기독교를 각각 담당하며 전임연구 인력만 11명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그램이다.

불교문화연구원은 학술과 관련해서도 활발한 학문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월 25일부터 개최하는 '세계불교석학초정학술세미나'에서는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이라는 대주

제로 국내의 학자 총21명이 발표한 다. 이를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학교의 학술적 역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불교와 동국의 정신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한 4월 21일 개최하는 '건학 백주년 기념 학술 대회'로 동국의 건학정신을 점검하고 불교문화의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연례행사인 '해외불교석학초정특강'도 실시한다. 4차까지 개최된 불교생태학세미나 관련사업으로 100주년 기념 불교생태학총서를 올해 안에 총10권으로 발간완료 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문화연구원이 발간하는 저널로는 불교학보와 불교원전연구가 있다.



연구에 몰두하고있는 불교문화연구원의 연구원들.

특히 불교학보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인데, 이는 학술지로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학술총서로는 △조선왕조실록 불교사료집 △불교사상총서 △불교생태학총서 등이 있다.

앞으로 불교문화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불교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를 더욱 확산시키고,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특성화사업으로서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하여 국내 불교연구의 중심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1 명의류안(名醫類案) 요약본
동국총서 15
전수경과 관음신앙
김홍성 지음
2006/국판/376면/12,000원
ISBN 89-7801-158-6 04220

'명의류안(名醫類案)'은 중국 명나라 시대에 강간(江間)에 의해 초고가 완성된 후 아들 강응원(江應元)·강응숙(江應勳) 형제에 의해 교정·보장을 거쳐 1562년에 간행이 이루어졌다. 20년이란 시간을 통하여 초고가 완성된 후에도, 간행되기까지는 40년이라는 더욱 긴 시간이 걸렸지만, 부자기간에 이어지는 정(情)과 학문의 맥을 느낄 수 있다. 모두 205문(門)으로 나누어 급·만성전염병 및 기타 내과잡병·외과 부인과 소아과 등 각종 병증에 대한 역대 명의들의 변증과 처방이 실려 있으며, 상당수 저자 자신의 평과 치료 증례도 기술되어 있다.

저자인 강간·강응숙 부자의 관계는 마치 '사기(史記)'를 저술한 사마담(司馬談)·사마천(司馬遷) 부자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소위 말하는 천직(天職·Calling)이라는 의미를 다시 새겨 본다. 하늘이 내린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여 도보로 중궁의 넓은 지역을 편력하여 위안을 수증한 아들 부자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살리고자 하는 부친님의 자비함과 다를 바 없다. 본서의 '의계(醫戒)' 편에서는 "의사는 미명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남의 질병과 고통이 나와 드리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 의사를 부르거든 제재 없이 급히 환자에게 가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부유하고 가난한 것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사람을 구하는 데 마음을 두어 인연을 맺고 자신의 복을 쌓으면 이것 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 만약 남이 위급한 틈을 타 재물을 구하는 데 뜻을 두고 마음 씀이 어질지 못하면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화를 부르는 것이다. 만약 병이 위독하여 치료할 수 없음을 알아도 역시 좋은 약을 많이 주어 그 마음을 위로하되 끝내 돈을 받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오래 있어 그 사람을 잘 이는데 치료는 해도 끝내 돈을 예기를 하지 않으니 가히 의자 중에서 최고의 의사다"라고 하였다. 그러한 공덕이 쌓여 나타난 현상에

2
'반야심경'과 더불어 한국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현수경'은 그 중요성이 지대할 만큼 이미 많은 해설서들이 나왔지만, '현수경'의 의미나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못한 듯하다. 이에 관한 문제점을 하면서, '현수경'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수평의 지평을 제시하는지, 신행론적 입장에서 고찰해 본 '현수경'의 이야기를 견내고 있는 저자의 의도에 주목해 볼만 한 듯하다.

전체 세 부분 가운데, '제 1부 '현수경'의 요체' 부분은 수행자들을 위한 '현수경' 해설을 목적으로 정리한 15편의 팔막한 예세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의 솔직담백하면서도 깊은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기법이 짧고 간결한 문체에 담겨져 있어 독자들이 다가 가기에 그다지 큰 부담을 주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자연스럽고 독자 스스로의 신행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진솔한 저자의 이야기가 귀 기울여야만 할 정도로 길고 길어질까 걱정되는 내용들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나 1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현수경'을 연구해 온 성과물들을 적절하게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좀 더 진지하게 주제를 고찰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지침서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는 '제 2부 '현수경'과 관음신앙'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보다 긴 형식의 글 11편으로 채워져 있다. 머리말에서 저자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해하기에 결코 쉽지만은 않은 내용들이다. 그러나 신행론적 입장에서 '현수경'을 탐구해 나가는 저자의 성실한 태도가 녹아있는 글들은 읽는 이 역시 성실한 태도로 주제 탐구에 종조하게끔 하는 마력이 있는 듯하다. 어렵지만 조금씩 묵묵히 읽어 나가 보면, 스스로의 신행생활에 충실해 적용시킬 수 있는 알찬 내용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묘미 또한 특별히 볼 수 있는 듯하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송용 '현수경'뿐만이 아닌 원본 '현수경'의 탐구를 통해

교수 저서 소개 - 경찰행정학과 이항우 교수

경찰행정학
경찰학개론
경찰인사행정론
비교경찰제도(I)
경찰체제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물론 경찰학의 전공하는 학자나 실무자들에게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가의 경찰제도를 탐구하여 외국의 경찰제도를 이해시켜 국제협력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의 역사와 조직을 비롯하여 경찰의 인사, 활동, 통제 등 민주경찰의 연혁과 기본구조에 대해 다루었고 경찰의 범죄대응체계, 지역사회와 경찰활동과 공공질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서술했다. 또한 국립경찰의 작동원리와 실제 활동 및 현행 법률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자세하게 수록했다.

우리학교 동아리 홍보 실태 분석

색깔있게 알리는 길 모색 필요

단순 게시물 부착·데스크 홍보 등 뻔한 방법 새내기 눈길 끌기 힘들어

취미를 살리고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동아리는 대학문화의 꽃이자 대학시절의 소중한 추억이다. 고등학교와 비교하면 훨씬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있으며, 깊이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동아리의 열정적인 공연이나, 혹은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분위기는 대학문화의 정서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략적인 기업마케팅과 개인PR 등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리의 홍보 역시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아무리 내실 있는 동아리라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결국 유명무실한 동아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개강과 동시에 해마다 그랬듯이, 요즘 각 동아리에서는 끼와 열정을 가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학내 곳곳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아리가 게시판 등에 대자보나 벽보를 부착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송명희(광고홍보1) 양은 "대부분의 동아리가 벽보로 홍보하다 보니 직접적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일부 행사도 팔정도 부근에서만 이루어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장지은(교육1) 양 역시 "전단지 홍보보다는 동아리의 특성을 살린 공연 등 구체적인 홍보

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동아리 홍보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상당수의 동아리들이 팔정도에서 하는 데스크홍보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소개를 하며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올해는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적극적인 홍보 역시 찾기 힘들어졌다. 이에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홍보 방법이 모색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극적인 홍보로 신입생 모집에 나서는 몇몇 동아리들이 눈에 띈다. 창작음악동아리 '몽계구름'은 지난 8일 팔정도와 학관 앞에서 두 차례 홍보 공연을 가져서 높은 호응을 얻었고, △AD-rush △MASIC △몽그라미 △디딤돌 등이 속해있는 '동아리연합회 예술창작분과'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갤러리동국에서 전시회를 연다. MASIC은 오는 16일까지 11일간 오후 1시 반에 팔정도에서 간단한 마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영어연구회 'TIME' 역시 지난 6일부터 5일간 본관(C105)에서 칼럼 해석 발표회를 가졌다.

우리학교 동아리는 △학술1·2분과 △예술·창작분과 △공연분과 △사회분과 △봉사분과 △연구분과 △체육교양분과로 나뉘어 있는데, 동아리 특성상 공연분과처럼 개방형 동아리가 아닌 경우에는 여건상 별다른 홍보활동

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연초 개별적인 동아리 홍보는 전적으로 각 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수(경영1) 군은 "동아리에 관심이 있어도 홍보가 부족해서 학생회까지 일부러 찾아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일정한 장소에서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양대는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주체로 새내기 공개모집을 개최하였고,

중앙대에서 지난해 동연 주최로 개최한 동아리박람회 등이 좋은 예이다.

우리학교는 동연 주최로 이번 달 27일부터 3일간 동아리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짜임새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그간 전반적으로 위축된 동아리 활동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하여



손재현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교수

성폭력이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치근대는 행위나 성적인 농담 또는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성적인 몸짓을 해보이거나,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뻔히 쳐다보는 행위, 성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허락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일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등과 같은 일종의 권력의 서열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직장동료나 친구 사이와 같은 수평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을 매개로 한 잘못된 일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성문화가 자유로워지면서 더욱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청소년은 막론하고 성인들에게까지 올바른 성의식 정착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일찍이 우리사회는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 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겨 왔습니다. 남성을 성의 주체로 인식하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시대풍조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는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제인 남·녀 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할 때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성범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죄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남·녀가 평등한 성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나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율롭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남·녀가 평등한 성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나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평소 자신의 성행동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누구도 당신에게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가치관을 검토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개발하여 성에 대한 자기 정체감 및 자기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역할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보도록 합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일 수 없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여 건전한 성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활용Tip

우리학교 취업지원 홈페이지 <http://academic.dongguk.edu/job/>

공지사항 수시 확인으로 알짜정보 얻기

우리학교도 온라인 취업컨설팅사이트에 못지 않은 우수한 취업지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취업지원 홈페이지는 취업을 해야 할 4학년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다.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저학년과 졸업 후에도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 졸업생도 이용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이 되어서야 학교에 이런 좋은 홈페이지가 있는 줄 몰랐다가 안타까워 하곤 한다.

취업은 4학년이 되어서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1학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최소 2-3일에 한번 정도만 방문해도 학교 외에서는 받을

수 없는 취업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재학생서비스에서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등록된 학생들에게 Job Magazine이라는 웹진을 통해서도 매주 취업정보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학생서비스-신청서비스-취업메일링 신청'에서 이메일신청을 해놓고 이메일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꼭 확인해서 바꿔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이 활

용할 수 있는 주요 메뉴를 살짝 알려주고 다음 호에는 좀 더 자세히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업지원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academic.dongguk.edu/job/' 이다. 꼭 즐겨찾기에 추가하기 바란다. 취업지원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학교홈페이지 좌측 메인메뉴를 보면 '취업지원' 메뉴를 클릭하여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취업지원 홈페이지의 메뉴를 살펴보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메뉴는 공지사항이다.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



항과 같지만 취업지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외의 메뉴로는 채용정보, 부업정보, 자료실, 취업가이드, 사이버상담실, 방문상담 예약하기, 취업지원센터 소개, 취업프로그램 소개, 취업 관련 사이트, 취업스터디그룹 링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는 힘이다. 놓치지 말고 취업지원 홈페이지의 정보를 잘 활용하도록 하고 다음 호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지홍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팀 상담원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모집인원 ○○명
-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 원서접수 3월 16일(목) 오후 5시까지
- 전형일시 3월 16일(목) 오후 6시
- 원서고부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 문의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02)2260-3491 ~ 2
홈페이지 www.dgupress.com 자유게시판
- 혜택 장학금·활동비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개설 어학특강 무료 수강
기자전문교육기관 무료 수강
임기만료 후 언론인전문교육기관 등록 지원



동대신문사 객원기자 모집

동대신문과 함께 동국 소식을 전할 객원 기자를 모집합니다. 열린 신문, 열린 정보로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동대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동국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각 단과대별 1명, 대학원생 1명, 만평기자 1명
- 응시자격 학년제한없음(단, 재학생에 한함)
- 원서접수 3월 15일(수) 오후 5시까지
- 전형일시 3월 15일(수) 오후 6시
- 원서고부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 문의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02)2260-3491 ~ 2
홈페이지 www.dgupress.com 자유게시판
- 혜택 매일 소정의 활동비 지원
- 임기 2006학년도 1학기

Do Dream!